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부연구위원
(063-280-7174, 010-4121-1210)
- 담당실장 : 기획조정실장 이동기 선임연구위원
(063-280-7181)

보도시점 : 2016년 2월 19일(금)부터

‘전북형 행복지표’개발, 정책연계 필요

전북연구원, 도정대표통계를 행복지표로 전환해야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도현황과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핑 ‘전북도민 행복도와 정책연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해 전북형 행복지표개발, 행복지표 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정책연계방안모색, 도정대표통계의 도정행복지표 전환, 행복한 지역성장이라는 전략 목표 방향설정 등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 첫째, 행복도는 지표의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행복도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행복지표 개발이 우선해야 한다.
- 둘째, 행복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행복정책의 지표별 계획수립과 성과목표 달성여부 지속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행복도의 정책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 셋째, 34개분야 4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서민생활경제 중심의 도정 대표통계를 도정행복지표로 전환하여 전라북도 정책의 방향성과 선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넷째, 경제적 성장의 필요성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지역성장’ 을 전라북도 행복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의 결과가 도민의 행복으로 체감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책임연구위원인 김동영 박사는 “행복도는 삶의 질과 물리적 조건의 균형이 이루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전라북도로서는 성장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행복도와 정책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며 전북형 행복지표의 개발과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최근 전라북도 도민의 행복도 수준은 한국일보 지역행복도 조사(2016. 1. 22)에 의하면 신뢰도와 연대감이 높고 특히 ‘지난 1년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울산(66.4%)에 이어 65%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경제적 만족도는 보편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의 사회조사(2014·2015)에 의하면 근로여건, 문화향유생활 여건, 사회보장제도 여건, 생활여건, 건강평가, 의료서비스 만족도, 계층이동, 주관적 소득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지만 가족관계, 주관적 만족감, 사회적 관계망, 사회안전, 계층의식 등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 전북도민은 대체로 물질적 만족도는 낮지만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 전북도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문화여가생활이나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삶의 질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최근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내적 상황과 세계적인 저성장의 지속에 의해 국가정책이 소득이나 개발중심에서 소외되었던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세계적 흐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